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1년 12월 3일(금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사회재난과	담 당 자 • 코로나19 총괄관리담당 김용성 ☎440-7813 • 담당자 김태형 ☎440-7802			
사 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,			

박남춘 시장,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에 총력

- 허위 진술이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큰 위협에 빠뜨려, 고발 등 철저히 조치 -
- 확진자 동선 체크·접촉자 격리 등 확산 방지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총력 -
- 백신 추가 접종 및 재택치료 정착 위해 대응체계 점검 당부 -

인천광역시는 박남춘 시장이 3일 주재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지대본) 회의 자리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직자들이 방역과 대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에는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상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.

앞서, 인천시에서는 지난 12월 1일과 2일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중 4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된 바 있다.

박 시장은 “이번에도 확진자의 허위 진술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위협에 노출됐는데,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공동체를 얼마나 큰 위협에 빠뜨리는지 뼈저리게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

례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” 며, “관할 구에서는 허위 진술 등에 대해 고발 등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주기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이어, “방역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하고, 변이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동선 체크와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격리·검사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” 고 당부했다.

또, “12월 6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방역 강화조치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,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출입자 관리와 방역수칙 지도·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” 면서, “먼저,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연기 가능한 만남이나 행사는 미뤄주시고, 재택근무 확대 실시 등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” 을 당부했다.

끝으로, “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백신 접종과 재택치료의 정착인 만큼 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에 대한 3차 접종에도 만전을 기해 주고, 재택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면밀히 살피는 등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” 고 당부했다.